

# “인연의 소중함 알아야 합니다”



더위 아랑곳 않고 몸 설 틈 없이 마루 텃밭 법당 앞 화단 등 돌아가며 종일 울력 철저한 검약생활은 주위에 귀감...“신도들 시냇물 함부로 써서는 안돼”



###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정공 스님 (장수 극락사 극락선원 조실)

**밤** 낮 없는 무더위가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 한편에서는 독거노인들이 무더위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고, 한편에서는 병방병에 시달리는 환자들로 병원이 북적인다. 우리 시대 여름의 두 얼굴이다.

무더위와 비번 일상에 시달리던 8월 1일, 전북 장수 극락사를 찾았다. 서울에서 세 시간 가량 달려서 도착한 극락사는 허름한 시골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곧 쓰러질 듯 서 있는 요사채 앞마당에는 자그마한 텃밭이 가꿔져 있고, 그곳에서 울력을 하던 정공 스님이 고개를 들어 기자를 맞는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인사부터 하고 와요.”

벌써 한 줄기 땀이 얼굴을 타고 내리는 기자와 달리 법당 앞 커다란 토란잎은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싱싱한 모습으로 작은 그늘을 만들었다. 그는 밭에는 잡자리 한 마리가 더위를 피해 앉아 있었다.

먼저 묻은 법복을 툭툭 털고 요사채 마루에 걸터 앉은 정공 스님께 “불사하신지 꽤 오래된 것 같다”고 여쭙었다.

“부처님은 의왕(義王)이예요. 의사가 병원이 크고 화려하다고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부처님도 그곳이 넓고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프고 힘든 중생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와 병을 고쳐 주십니다.”

마침 정공 스님을 모시는 시자스님 한 분이 음료수를 건넸다. 잠시 목을 축이고 날씨 얘기를 꺼냈다.

“이곳에도 지난 태풍 때 비가 많이 왔나요?”

“여름엔 비가 많이 오고 덥지요. 이 우주 법계 돌아가는 이치예요.”

“덥진 않으세요?”

“더울 겨울이 있나요?”

시자스님에 따르면 정공 스님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한다. 새벽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종일 울력을 하신다는 것이다.

스님과의 대화 역시 울력을 위해 자리를 옮기는 스님을 따라 요사채 마루에서 텃밭으로, 텃밭에서 뒤뜰으로, 뒤뜰에서 법당 앞 화단으로 이어졌다.

요사채 앞마당에 놓인 평상을 살피던 스님은 한쪽이 기울어진 걸 발견하곤 기자를 재촉해 기어올라 내까지 평상을 고쳐다 다녀와서야 대화를 이어갔다.

조용히 텃밭을 손질하던 스님은 잘 여문 오이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빛을 먹는 것이예요. 빛 속에는 우주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빛을 제대로 먹고 자란 과일과 야채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밝아지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스님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맺는 인연(因緣)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사는 모든 것은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나와 인연을 맺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스스로 내면의 진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 모두가 부처라는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올해로 세수 78세인 정공 스님은 매일같이 울력을 하느라 회색 승복엔 흙이 묻고 승복 바지를 뒹어맨 끈이 남아도 “신도들의 시냇물 귀한 줄 알아야 한다”며 새 승복 사는 것을 만류한다. 낡은 승복이 극락사의 조흔한 법당과 더없이 잘 어울려 보였다.

“요즘 사람들은 법과 진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욕심만큼 안 벌리니까 불안해하지요.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돈은 중요치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정공 스님은 극락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올마니 반메홀’ 수행을 권한다. 염불삼매를 경험하고 화두를 참구했던 수행이력에 비춰보면 그 까닭을 짐작하기 쉽지 않다.

“늘 올마니반메홀 육자 진언을 외면 우리 몸에 중음신(中陰神)이 붙을 구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염불이건 참선이건 수행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 집니다. 또한 올마니반메홀은 우리의 실상과 근원을 일깨워 주는 진언입니다.”

극락사 곳곳에 ‘올마니반메홀’이 새겨진 비석도 세웠다. 요사채와 법당 사이는 스무 발자국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길이지만 그곳을 오가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진언을 외라는 뜻에서다. 잠시 잠깐도 몸을 쉬지 않고 수행의 끈을 놓지 않는 스님의 모습에서 한철 더위는 한낱 내 몸을 쉬게 하려는 핑계일 뿐임을 느끼게 된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백재원 기자



극락사 법당 앞에는 토란이 자그마한 그늘을 만들고 있다(왼쪽 사진). 신도들이 늘 보고 진언을 외라는 뜻으로 세운 ‘올마니반메홀’ 비.

## 화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하다!! 제 신비와 영험의 치우천황(붉은악마) 영험도량 지장사 출현



소승이 그 동안 치우신의 기도를 통해 얻은 놀라운, 영험을 많은 중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치우천황을 세상에 공개하니 치우신의 영험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치우천황 (붉은악마)? 현재 SBS 방송중인 연개소문이나 MBC 주몽에 나오는 전쟁의 신, 군신으로서 그자체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한국팀의 2002년 월드컵 첫경기인 폴란드와의 결전이 있기전 치우신께 정성껏 제를 올려 치우천황의 도술이 고강하여 한국팀을 돕고져 안개의 조화를 부려 한국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절망속에 빠진 신도분이 땅과집이 매매가 되지않아 법당의 신장상을 친견하고 놀라면서 스님 머리관이 붉은악마 치우천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연개소문에 나오는 치우천황입니다. 스님은 시절인연이 몸을 깨닫고 치우신의 신비한 영험을 얻고져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정진중 치우신이 꿈에 선포 되면서 집과 땅이 매매가 되었고 이후 많은 기도가성취되고 있습니다. 스님은 치우신의 고강한 도술이 스님을 돕고 있는것을 깨닫고 절망속에 빠져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보고 굿을해도 되는일이없고 기도영험을 못보신분 치우신을 친견하고 신비의 영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위치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4번출구 하이마트앞 지장사 치우천황을 멀리서 친견 못하시는분들을 위하여 지장사 치우천황의 기를 받은 축자와 스님이 치우신께 올린 기도비법이 담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치우도는 소원성취입니다 소장 하시면 큰 영험을 보실것입니다.
- 축자크기 : (가로 50cm×세로 120cm) • 시주금 : 1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 962-04-302226
- 문의 : 02)930-6052 지장사

\* 입시생은 치우신께 꼭 직접 발원을 하십시오 치우천황은 그자체로 승리입니다.

## “이름 대사전”

###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 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타암 주지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 지금 주문하시면 5일후에 도착합니다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 氣 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 고열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열전 등 열관계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쬐어주면 사항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